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21년 3월

휴먼러니짐

참가안내

[역사] 피터 히스토리아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철학] 마음을 찍는 사진관

★ 일상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청소년 철학 입문

[철학] 우리 안의 근대성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21년 3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역사 20만원(10강), 중·고등부 철학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강좌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3. 강좌 기간 총 1회 휴강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역사 초등

피터 히스토리아 : 영웅이 아닌 한 소년의 역사 이야기 (10강)

★ 불멸의 소년과 떠나는 역사 시간여행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3월 21일~5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참고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 1-2권 중 각 강좌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와주세요.

만화 『피터 히스토리아』는 온몸으로 역사를 살아온 한 소년, 피터 히스토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용을 무찌른 기사도, 악마와 맞서 싸운 마법사도 아닙니다. 이 소년이 남들과 다르다면 기나긴 역사를 13살 소년의 모습으로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니 피터 말고도 피에트로, 페트로스, 피에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역사를 영웅들의 재미난 기차놀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소년과 함께 역사 속을 걷는다면 사람들에게 역사란 얼마나 고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끝없는 싸움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사리 움튼 희망의 싹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였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끝난 후, 남겨진 역사의 빈 곳을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채워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1강_ 긴 여행의 시작, 메소포타미아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 소년 피터와 쾌활하고 씩씩한 엔키두는 마을의 절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테루의 절친한 친구 엔키두가 엄청난 형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검사, 변호사가 되어 그를 재판해봅시다. 이 재판과 함께 피터의 여행이, 그리고 인간의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2강_ 결코 너처럼은 살지 않겠어 : 그리스의 현인들

아이고, 내 팔자야! 또다시 노예가 되다니... 노예였던 피터가 또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인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라던데... 그런 주인보다 내 옆의 노예가 더 똑똑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어? 그런데 주인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이 노예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군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3강_ 유일신의 도성 : 예루살렘, 예루살렘

신께서 우리를 구원해줄 거라고? 정말로 그럴지 아닐지는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 피터가 예루살렘에 신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유일신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서양사의 뿌리를 이루는 기독교에 얽힌 역사를 살펴봅니다. 각자 왕이 되어, 성직자가 되어, 귀족과 평민, 노예가 되어 자신의 속을 감춘 기막힌 토론을 벌여봅시다!

4강_ 하얀 사람 : 무례한 총잡이들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까만 사람들의 땅이 나온다네~♫ 유럽이 자꾸자꾸 땅 부자가 되기 시작하네요. 드디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유럽을 여행해 봅시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대항해시대에 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과연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뿐일까요? 하얀 사람들의 영광 뒤에 누군가의 피눈물이 있었다면요? 4번째 시간은 위대한 역사 뒷면의 아픈 그림자를 따라가 보는 여행입니다.

5강_ 지구와 태양의 간단한 비밀 : 유명한 종교재판 이야기

상식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모두가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고 있던 시절, 진짜로 도는 것은 '지구'라고 주장한 위험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훌륭한 과학자로 존경을 받는 갈릴레이에게 비겁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6강_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 : 혁명의 도시, 파리

“배가 고프다고 했느냐? 그럼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어디서 행패냐?” 굶주린 민중들 앞에서 뻔뻔하게 외치던 왕과 귀족들에게 휘둘러진 철퇴! 피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혁명 중 하나로 꼽히는 프랑스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놓인 루이 16세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네요. 피로 이뤄진 혁명은 옳지 않거나 뭐라나?

7강_ 쉬지 않는 방적기 :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류는 더 많이 쓰고 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모든 부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법!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이면에는 빈곤과 착취라는 그늘이 있었으니... 19세기 영국의 어린 노동자들은 인류의 풍요를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8강_ 산사람들이 남긴 약속 : 그들은 바로 '나'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사인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전쟁터로 삼았던 세계대전은 바로 20세기에 두 차례나 벌어졌죠. 인류의 역사는 진정 피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은 계속되는 걸까요?

9강_ 내 이름은 메어리 허스토리아 : 세상 사람 절반의 외침

역사 속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건 혹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남성들만의 역사에 과감히 판지를 거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역사(history)에는 담기지 않았던 또 다른 역사(herstory)를 만나봅시다.

10강_ 안녕, 피터 : 끝나지 않을 여행의 시작

지난 수업들 동안 피터는 어디에 있었나요. 여전히 만화책 속이었나요? 자신이 머물고자 했던 곳은 네모난 만화 칸 속도, 오래된 옛날이야기 속도 아니라고 말해 온 피터. 피터가 오늘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은 뭐니?” 그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철학 중등

마음을 찍는 사진관 (10강)

★ 일상문화를 통해 접근하는 청소년 철학 입문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3월 21일~5월 30일 오후 1시 <일요강좌> 3월 21일~5월 30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철학 강좌는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론을 설명하거나 철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종류의 수업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청소년에게 적절하거나 흥미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철학이 머리가 아픈 학문이라는 믿음(?)은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만약 일상적인 곳에서 철학을 끌어 내올 수 있다면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충분히 철학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세상의 비밀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다에서 마련한 중등부 강좌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익숙한 문화를 통해 철학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철학자가 되어보지는 않으실래요?

.....

1강_ 마음을 찍는 사진관 : 나는 어떤 존재일까

흐르는 시간에서 찰나를 잡아내려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은 그 순간을 정지시키는 시도를 통해 영원한 존재를 꿈꾸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림 한 장에 담긴 세계, 사진 한 장에 담긴 철학을 눈으로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2강_ 그림자 놀이 :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방법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자연은 대상의 모습을 땅 위에, 바위 위에, ‘그림자’ 기법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의 감

각은 ‘뇌’라 이름 붙은 종이에 ‘인상’이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그 그림들을 흉내 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알쏭달쏭하다고요? 이 안에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3강_ 인생은 논리적 오류야 : 논리적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진리는 없다’라는 명제가 진리일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면 논리로 설득한다는 것도 일종의 패러독스(paradox)일지도 몰라요.

4강_ 데스노트가 주어진다면 : 선과 악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

『데스노트』라는 만화 혹은 영화를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혹시 데스노트에 적고 싶은 이름이 있나요? 데스노트에 적으려 한 그 이름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악인일까요? 아니면 데스노트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당신이 악인인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 거죠?

5강_ 사랑하고 싶어 :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

여러분이 꿈꾸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때에 따라 결혼을 하고, 둘만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요. 그렇게들 살고 있는 평범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실례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도, 사랑도, 결혼도, 둘만의 아이도, 행복도, 모두 한 남자나 한 여자의 선택이 아니야.”

6강_ 소꿉장난의 추억 : 부조리의 정체

소꿉장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귀여워라,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어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한낱 소꿉장난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선생 역할, 학생 역할, 사장 역할, 직원 역할, 역할 놀이를 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세계는 한없이 부조리해 보이는 걸까요?

7강_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적절한 경쟁은 꼭 필요할까?

한국사회의 경쟁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무한경쟁에 시달리며 그것이 때로는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전적으로 나쁜 것일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무한’경쟁이 문제일 뿐 적절한 경쟁은 작게는 게임에서의 재미를 위해, 크게는 이 세상이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도,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도 인간에게는 경쟁이란 숙명과도 같은 것일까요?

8강_ 멋진 신세계 :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법

과학 기술은 단지 허구에 불과했던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의 로봇과 책 속의 요정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만화 속의 스파이더맨이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곧 눈앞의 현실보다 가상현실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만드는 가상현실은 우리의 사고마저 매트릭스에 가두어버리지는 않을까요?

9강_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正義)를 정의(定義)하다

한국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에 관한 갈망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몇 마디 대사로 쉽게 정의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말하고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각자의 위치에 따라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의견이 갈리고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질문에 한 번 대답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10강_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 삶을 지배하는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흔히 삶을 이런저런 놀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투판 혹은 포커판에 때로는 장기판 혹은 체스판에 그리고 때로는 윷놀이 혹은 주사위 놀이에... 이런 비유들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운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면... 재미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답에 무엇이냐에 따라 내 삶의 계획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철학 고등	우리 안의 근대성 (10강) ★ 내 삶을 규정짓는 근대철학 이야기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토요강좌〉 3월 20일~5월 29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우리는 서구 사회가 고안했던 근대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서구의 근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탈근대(post-modern)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대라는 괄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 전근대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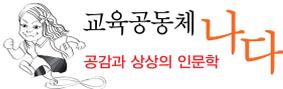
근대의 사상가들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자신했지만, 적어도 근대 사상의 많은 부분은 기만적이고 위선적이며 오만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만과 위선과 오만은 고스란히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도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시절의 철학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의 철학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대적 사고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사고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근대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지혜를 새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근대성의 정체에 다가서고 그런 후에 넘어서기 위한 과정입니다.

.....

1강_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 변화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전철처럼 달려가고, 흐르는 시간에 따라서 세상도 변하고 내 몸도 마음도 변해가는 것을 누구도, 절대로 막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무(無)를 향해 달려가는 변화의 수레바퀴를 부정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욕망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강_ 너 자신을 알라 : 플라톤, 철인의 정치를 꿈꾸다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혹 그것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찾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나 있을까요?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는 무모한 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턱이 없다는 수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존재한다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진리로 가는 길 입구에 놓여있는 이정표조차도 읽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를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가 정말 진리를 아는 자가 맞는지, 그가 아는 것이 정말 진리인지, 누가 보증해줄 수 있을까요?

3강_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 데카르트, 나와 세계를 분리하다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근대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참 그럴듯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내가 사라지면 결국 세상도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진정한 소통을 나눌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이유는 혹시 당신이, 그리고 당신, 또 당신이,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인 것은 아닐까요?

4강_ 가면 속의 가면 : 흠, 감각의 거리에서 길을 잃다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착한 어린이 가면 하나 정도는 꼭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부하는 가면을 챙겨 두지 않으면 출세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려면 누구나 잘난 척 가면 정도는 꼭 갖추고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면을 몇 개나 가지고 다니나요? 혹 그 가면을 벗으면 실제 얼굴이 드러나나요? 가면 속에, 가면 속에, 가면 속에, 아무리 벗겨도 절대 맨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 가면이 결국 내 진짜 얼굴인 건 아닐까요?

5강_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 칸트, 계몽에 영혼을 불어넣다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칸트의 이 말을 미성숙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새겨들을 지어다! 그대들이 성숙한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때로 그것이 통제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대들 속에 있는 무지와 편견 때문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성숙한 어른들에게 배워야 한다. 왜 꼭 그래야 하나요?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6강_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 헤겔, 역사를 끝장내다

세상을 전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먹히는 끝없는 싸움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것이 각자의 삶의 목표이고 결국 그 싸움의 시간을 모은 것이 인간의 ‘역사’라 불린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인정받고 싶은가요? 동생보다 더 엄마에게 인정받고, 친구보다 더 교사에게 인정받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적인, 적어도 모두가 서로의 적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한, 이 자본주의라는 싸움터가 당신의 유토피아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러하다면 인간의 역사는 선의의(?) 경쟁이 모든 관계 속에서 불꽃 튀는 이 유토피아를 만나기 위해 흘러왔던 것입니다.

7강_ 약자들의 개똥철학 : 마르크스, 철학을 물구나무 세우다

당신은 강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전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요? 철학이란 것이 삶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약자들의 삶은 어떤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약자들도 철학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해석하기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는 철학을 그저 가진 자들의 지적 유희에서 무기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에서 약자들의, 우리들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8강_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 프로이트, 무의식을 들여다보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육체에 갇들어있는 영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우리의 몸이 의식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기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면 의식적으로만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꽤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배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특히 ‘근대’라고 불린 시기 동안에)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나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잠잘 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요?

9강_ 슈퍼맨의 비애 : 니체, 철퇴로 철학하다

입시 경쟁에 내몰려 산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 당신, 그 사이 당신은 아마도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당신은 우리네 공부가 그러한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정해진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잘 살려고…”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대학이나 직업 같은 물질적 조건을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철학은 우리 사회의 공부 같은 그런 공부와는 다르다고, 철학 공부를 하는 의미와 가치는 특별하다고…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철학 공부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10강_ 뷔리단의 당나귀 :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가 하필 두 개의 비슷해 보이는 건초더미를 발견했습니다. 한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다른 쪽의 건초더미에 다가가면 또 다른 쪽의 건초더미가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당나귀는 결국 두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대 철학을 공부한 후 근대적 사고가 가진 딜레마를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딜레마가 그저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현실의 폭력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당신은 당연히 그것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뷔리단의 당나귀처럼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머무르면서 나는 벗어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 속에 혹시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나요?■

■교육공동체 나다 2021년 3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